

대청호 녹조발생 낮춘다...저감시설 착공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으로 녹조원인 물질인 총인 60~80% 저감 예상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행 정경윤)는 4월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서 중부권 대표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행을 비롯하여 청주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이번에 대청호 상류 유역에 설치되는 저감시설은 모래를 이용한 여과 방식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을 60~80%까지 저감시킬 수 있으며, 대청호 상류 2곳(미천천, 품곡천)에 설치되어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대청호 상류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설치위치	적용공법	시설용량	처리효율
청주시 문의면 미천리(미천천)	침전 및 여과습지	1,800m ³ /일	T-P 61.9%
청주시 문의면 상장리(품곡천)	침전 및 여과 습지	7,000m ³ /일	T-P 82.6%

대청호 상류 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비가 내릴 때 함께 흘러들어오는 영양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걸러져 대청호 유역의 녹조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대청호 유역 외에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내성천(경북 영주시 부석면), 보현호(경북 영천시 화북면), 계성천(경남 창녕군 장마면) 유역에도 내년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강, 낙동강 등 상수원 상류 유역의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영양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나 퇴비 보관 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대청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충청지역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청호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 계획.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영임 (044-201-7010)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처	책임자	부 장	방호희 (042-629-5370)
		담당자	차 장	김병수 (042-629-5371)

□ 행사개요

- (행사명) 대청호 상류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
- (일 시) '23. 4. 11(화). 11:00~13:00
- (장 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부지(청주시 문의면 노현리)
- (참석자) 환경부, 수자원공사, 청주시,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지역주민(미천리, 노현리)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 (공 사 명) 대청호 상류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23. 1~'24. 4월
- (총공사비) 약 72억원
- (공사위치) 청주시 문의면 미천리 61(미천천), 상장리 21-20(품곡천) 일원

구 분	미천천(문의면 미천리)	품곡천(문의면 상장리)
시설용량	1,800m³/일(체류시간 24.4hr)	7,000m³/일(체류시간 18.5hr)
처리공정	침강지→수직여과습지 (모듈형침강지)	침전지→얕은습지→깊은습지→ 수평여과습지→방류못
처리효율	총인(61.9%)	총인(82.6%)
비 고 (조감도)		

- (기대효과) 대청호 수질개선 기여

구분	대청댐유역	사업대상지		
		계	미천리	노현리
면적	3,287.6km²	9.06km²	7.74km²	1.32km²
배출부하량	1,257.2kg/d	3.17kg/d	1.89kg/d	1.28kg/d
삭감부하량	752.2kg/d	2.23kg/d	1.17kg/d	1.06kg/d